

#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요구<sup>1)</sup>

- 코로나 19 확산 상황의 서울시 강북구 지역을 중심으로 -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2020하계학부생연구프로그램

성경하

---

1) 본 연구보고서는 성신여자대학교 2020 학부생하계연구프로그램의 결과보고서로서 본 원고의 저작권은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성경하(ha970923@gmail.com)에게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인용해야 합니다.

성경하(2020).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요구: 코로나 19 확산 상황의 서울시 강북구 지역을 중심으로. 성신여대 2020하계학부생연구프로그램 보고서.

## 1. 서론

1995년부터 지방자치제가 도입되어 각 지방에서 행정을 개별적으로 처리하기 시작하였다. 각 지방마다 지방세를 걷게 되고 지방의 특성에 따라 거둬들여지는 세액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각 지방단체별로 재정자립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서울시 강북구의 재정자립도는 16.8%로, 서울시 평균 76.1%에 매우 못 미치고 있다. 이러한 재정자립도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위로 강북구의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열린데이터광장 홈페이지) 부족한 자원은 강북구의 가족복지 정책 시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강북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책 현황들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한가지 예로 ‘우리동네키움센터’를 들 수 있다.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초등돌봄교실과는 별개로 서울시에서는 방과 후 초등학생 아이들의 돌봄 공백 해소를 목적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를 2018년부터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다. 3년차인 현재 서울시에는 86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인근 노원구에는 21개소가 설치되었다. 강북구는 2019년, 2020년에 각 1개소씩 설치를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하반기인 현재, 강북구에는 단 하나의 센터도 설치되지 못하였다.(희망강북 4개년 계획) 이외에도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로 육아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도 강북구에는 1개가 설치되어 있다. 이처럼 강북구는 열악한 재정으로 서울시에 속해있는 다른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가족복지 정책 시행이 미흡하고, 이는 강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의 정책적 요구가 충족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한정된 재원 내에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산업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실질 임금률이 상승하면서 많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뛰어들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자녀연령 0~17세의 맞벌이 가구 비율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문제는 가족복지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sup>2)</sup>.(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현재 국가에서 공적 돌봄(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맞벌이 가정의 부모의 출퇴근시간 및 근로시간과 기관 이용시간 간의 차이에 의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2015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에 따르면, 취학 전 영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이 가장 필요한 시간대 1,2위를 합쳐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오후 4시-6시, 오후 2시-4시, 오후 6-8 순으로 자녀의 돌봄이 가장 필요한 시간대로 나타났다. (장혜경 외, 2015) 이는 기관 이용시간과 부모의 퇴근시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 시간대 돌봄 요구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시간은 자녀 돌봄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사료된다. 이외에도 외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보호자가 자녀의 주양육자로서 자녀 돌봄을 담당

2) 자녀연령이 0~17세인 맞벌이 가구 비율은 2015년 47.2%, 2016년 48.4%, 2017년 48.6%, 2018년 51.0%로 맞벌이 가구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녀 연령 6세 이하의 경우는, 2015년 기준 38.1%, 2016년 39.6%, 2017년 41.6%, 2018년 44.2%이며, 자녀연령 7~12세인 맞벌이 가구 비율은 2015년 51.5%, 2016년 52.7%, 2017년 51.3%, 2018년 54.2%이다. \*막내자녀 18세 미만 기준으로 자녀가 없는 경우는 통계에서 제외되었다.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년도)

하고 있지만, 맞벌이 가구는 가구의 특성상 한 명의 보호자가 자녀 돌봄을 담당하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자녀 돌봄과 관련한 부부 간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하지만 2019년 맞벌이 가구의 여성 가사 시간(가정관리+돌보기)은 일 평균 3시간 7분인 반면, 남성 가사 시간은 일 평균 54분으로 약 2시간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

또한 2020년 코로나 19(COVID-19)라는 전염병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전염의 우려로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들이 장기간 문을 열지 않았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3월 개학이 미뤄져 4월에 개학할 수 있었다. 개학을 했더라도 주 5일 등교가 아닌 그보다 적은 횟수로 등교하였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COVID-19)로 불가피하게 야외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가정에서의 돌봄 시간이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코로나 19(COVID-19) 확산 이전과 비교하여 새롭게 나타나는 혹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돌봄 요구가 생겨났을 것이고, 부부의 자녀 돌봄 관련한 역할 분담에도 변화가 나타났을 것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돌봄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sup>3)</sup>, 주요 자녀 돌봄 정책 및 연구들이 영유아 자녀 위주로 집중되어 있어,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2020 서울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이에 본 연구는 강북구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고, 이와 더불어 코로나 19(COVID-19) 확산이라는 공적 돌봄 체계를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요구도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요구에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맞춤형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위의 목적으로 가지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시간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의 어려움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에 대한 부부 간 역할 분담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요구의 차이는 어떠한가?

3) 2019년 4월 기준, 전체 초등학생 중 돌봄교실 참여율은 초등1~2학년 비율이 각각 27.4%, 22.3%로 가장 높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돌봄교실 참여율은 감소한다.(2020 서울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 2. 선행연구 고찰

### 1) 인구사회학적인 요인과 맞벌이 가정의 부모 돌봄 공백 시간 및 자녀 돌봄 시간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시간과 관련하여, 자녀의 부모 돌봄 공백 시간과 자녀 돌봄 시간을 조사한 연구들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자녀의 부모 돌봄 공백 시간을 연구한 연구는 많이 없지만, 류연규 등(2019)은 평균 모 연령, 총 자녀수, 가장 어린 자녀 연령이 부모 돌봄 공백 시간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평균 모 연령이 높을수록, 총 자녀수가 적을수록, 가장 어린 자녀 연령이 적을수록 부모 돌봄 공백 시간이 유의하게 길어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하지만 임혜정(2017)은 초등학교의 학년이 진급할수록 즉,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돌봄 공백이 높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자녀의 부모 돌봄 공백 시간이란 부모의 출퇴근시간 및 근로시간과 연계되어 있기에, 부모의 근무형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9년 고용형태별 근로시간조사에 따르면, 정규직 근로자의 총근로시간은 165.2시간이며, 단시간근로자의 총근로시간은 76.0시간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 2020) 따라서, 근로시간이 적은 시간제와 근로시간이 긴 전일제 간에 자녀의 부모 돌봄 공백 시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류연규 등(2019)은 취업형태(정규직/비정규직)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모 돌봄 공백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모와 부의 근로시간은 길어질수록, 부모 돌봄 공백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부모의 자녀 돌봄 시간을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 연령, 자녀수, 자녀 연령, 부모의 근무 형태 등이 부모의 자녀 돌봄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현아, 2016; 조희금, 2016; 김나영, 2017) 이현아 등(2016)은 아버지 연령이 낮을수록 아버지의 주중자녀돌봄시간이 길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조희금(2016)도 나이가 젊은 아버지일수록 자녀양육참여도가 높다고 하였다. 반면 자녀 모와 자녀 부를 나누어 자녀 돌봄시간결정요인을 분석한 김나영(2017)은 부모 연령이 자녀 모와 자녀 부의 자녀 돌봄 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하였다. 조희금(2016)은 가정에 총 자녀수가 많을수록 맞벌이 가정 아버지들이 자녀의 인지적 성취를 높여주기 위한 자녀 양육 참여가 높다고 하였지만, 김나영(2017)의 연구에 따르면 미취학 자녀 수가 부모의 자녀 돌봄시간결정요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자녀 연령과 관련해서, 이현아 등(2016)은 자녀학령급이 중고등학교보다 초등학교인 경우 아버지의 주중자녀돌봄시간이 길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김나영(2017)은 미취학 자녀 연령이 1세 증가할 때 자녀 모의 자녀돌봄시간은 0.196시간 만큼 감소한다고 하였으나, 자녀 부의 자녀돌봄시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부모의 근무 형태와 관련해서, 이현아 등(2016)은 근무용통성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주중자녀돌봄시간이 길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김나영(2017)도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시간 사용이 유용할 경우 다른 한 쪽의 자녀돌봄시간은 감소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자녀 부의 경우에는 본인의 근로시간이 자녀 부의 자녀돌봄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 2)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어려움

아버지의 육아 참여에 대한 어려움과 관련하여, 이연승 등(2017)에 의하면, 아버지의 일반적 배경인 자녀 연령에 따라 자녀육아 어려움 중 아내와 양육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는 것과 육아 관련 정보 부족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육아기술 부족과 관련해서는 자녀 연령이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하였다.

취업모가 느끼는 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일일근로시간이 자녀 양육에서 어려운 점에서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고되었다. (김은설, 2012) 이 연구에 의하면 일일근로시간이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취업모 중 과반수가 ‘시간 없음’을 자녀 양육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으며, 4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취업모는 35.8%가 어려움 없음을 꼽았지만, 23.5%가 맡길 곳이 없다고 하였다.

## 3)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에 대한 부부 간 역할 분담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에 대한 부부 간 역할 분담 정도에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부모의 연령, 자녀의 수, 노동시간, 미취학가구원 여부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부모의 연령과 관련해서 허수연·김한성(2019)은 아내의 연령이 낮을수록 남편의 상대적 가사노동시간인 가사노동분담률이 커진다고 하였다. 안미영(2016)은 연령의 경우 아내의 돌봄 노동 분담률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며, 본인 연령과는 부적, 배우자의 연령과는 정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 반면 아내 및 남편의 나이와 자녀의 수는 남편의 가족 내 노동 분담 유형에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었다. (김소영, 2017) 미취학자녀 유무와 관련해서 허수연·김한성(2019)은 미취학자녀가 있을수록 남편의 가사노동분담률이 커진다고 하였으며, 안미영(2016)도 미취학가구원여부는 돌봄 노동 분담률에 정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노동시간과 관련해서는 아내의 유급노동시간이 길수록 가사노동분담률이 커진다는 연구가 있었다.(허수연·김한성, 2019) 안미영(2016)은 본인 및 배우자의 유급노동시간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는데, 본인의 유급노동시간은 유의미하게 돌봄 노동 분담률을 감소시키며 배우자의 유급노동시간은 돌봄노동분담률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 4)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요구

인구사회학적인 요인에 따라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요구를 조사한 연구는 없다. 하지만,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만들어진 가족친화제도 실시 집단의 활용 결정요인을 통해 위의 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다. 윤소영 등(2009)은 가족친화제도활용 결정요인과 관련하여 연령과 자녀수의 유의미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연령과 자녀수가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가족친화제도

등의 정책적 요구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 예측해볼 수 있다.

### 3.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부부의 근무형태, 자녀 수,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대, 부모 연령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거주 지역 및 기간,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여부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변수가 종속변수인 자녀 돌봄 시간, 자녀 돌봄의 어려움, 자녀 돌봄에 대한 부부 간 역할분담,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요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2) 연구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강북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가족을 모집단으로 하여 임의표집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전자조사(온라인조사, Surveymonkey)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는 2020년 8월 9일부터 2020년 8월 23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총 254부가 회수되었다. 이 중 자격박탈 및 중도포기자를 제외한 160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 3) 측정도구

##### (1) 종속변수

##### ① 자녀 돌봄 시간

자녀 돌봄 시간을 코로나 19 확산 이전 이후의 비교를 위해, 자녀 돌봄 시간을 자녀의 부모 돌봄 공백시간, 코로나 19 확산 이후 부모 돌봄 공백 시간의 증가 여부와 코로나 19확산 이후 부모의 자녀 돌봄 시간 증가 여부로 구분하였다. 먼저, 부모 돌봄 공백 시간이란 부모의 근로시간 동안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류연규·김송이·김민정, 2019) 설문조사에서는 부모 돌봄 공백 시간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3시간 이상~4시간 미만, 4시간 이상으로 구분하여 응답을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4시간 미만, 4시간 이상으로 구분하여 각 변수 값을 ‘2시간 미만’ =1, ‘2시간 이상~4시간 미만’ =2, ‘4시간 이상’ =3으로 코딩하였다. 변수 값이 클수록 자녀의 부모 돌봄 공백 시간이 길다. 코로나 19 확산 이후 자녀의 부모 돌봄 공백 시간의 증가 여부는 ‘코로나 19 확산 이전과 비교하여, 코로나 19 확산 이후 귀하 자녀(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부모 돌봄 공백 시간의 변화가 있습니까?’ 로 물었으며, 응답은 ‘부모 돌봄 공백 시간이 늘어났다’, ‘부모 돌봄 공백 시간에 변화가 없다’, ‘부모 돌봄 공백 시간이 줄어들었다’ 로 구성하였다. 이를 ‘부모 돌봄공백시간이 늘어났다’ 를 1로, ‘부모 돌봄 공백 시간에 변화가 없다’ 및 ‘부모 돌봄공백시간이 줄어들었다’ 를 0으로 이원화하였다. 코로나 19 확산 이후 돌봄 시간의 증가 여부는 ‘코로나 19 확산 이전과 비교하여, 코로나 19 확산 이후 귀하 및 귀하의 배우자가 자녀(초등학교 저학년 이하)를 돌보는 시간의 변화가 있습니까?’ 로 물었으며, 응답은 ‘자녀 돌봄 시간이 늘어났다’, ‘자녀 돌봄 시간에 변화가 없다’, ‘자녀 돌봄 시간이 줄어들었다’ 로 구성하였다. 이를 ‘자녀 돌봄 시간이 늘어났다’ 를 1로, ‘자녀 돌봄 시간에 변화가 없다’ 및 ‘자녀 돌봄 시간이 줄어들었다’ 를 0으로 이원화하였다.

## ② 자녀 돌봄의 어려움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코로나 19 확산 이전 이후의 비교를 위해, 자녀 돌봄의 어려움과 코로나 19 확산 이후 자녀 돌봄의 어려움으로 구분하였다. 자녀 돌봄의 어려움은 ‘귀하가 자녀(초등학교 저학년 이하)를 돌보는 데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 가장 주된 이유를 3가지 선택해주세요’ 로 물었다. 이에 대한 선택지는 11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중 가장 빈도가 높았던 3가지(자녀와 보내는 절대적 시간 부족, 자녀 교육에 대한 어려움(학습, 가정교육 등), 자녀를 돌보는 일 자체가 피곤하고 신체적으로 힘이 듭)를 분석에 투입하였다. 추가적으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정보 부족과 부부 간 자녀 양육 방식의 불일치를 분석에 투입하였다. 각각의 어려움을 선택하였으면 1로, 선택하지 않았으면 0으로 더미변수화하였다. 코로나 19 확산 이후 자녀 돌봄의 어려움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귀하 가정도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19 확산 상황에서 자녀돌봄과 관련하여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작성해주세요.’ 라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답변을 받았다. 이를 통해 받은 답변은 어려움 없음, 감염에 대한 불안감, 외출 제한으로 인한 어려움, 자녀 돌봄 시간 및 부담 증가, 돌봄 공백 시간에 대한 어려움, 돌봄 시설 및 서비스의 휴원과 부족, 학습 공백, 직장 상실 및 경제적 부담, 자녀 돌봄과 관련한 역할 분담 등이 있었다. 이를 어려움 없음, 외부적 위험(감염에 대한 불안감·외출 불가로 인한 어려움), 자녀와 관련한 어려움(자녀 돌봄 시간 및 부담 증가·돌봄 공백 시간에 대한 어려움·돌봄시설 및 서비스의 휴원과 부족·학습 공백), 부모와 관련한 어려움(직장 상실 및 경제적 부담·역할 분담), 기타로 구분하였다. 어려움 없음은 본 연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각 변수값은 ‘외부적 위험’ =1, ‘자녀와 관련한 어려움’ =2, ‘부모와 관련한 어려움’ =3, ‘기타’ =4로 코딩하였다.

## ③ 자녀 돌봄에 대한 부부 간 역할 분담

자녀 돌봄에 대한 부부 간 역할 분담을 코로나 19 확산 이전 이후의 비교를 위해,

부부 간 역할 분담 정도와 코로나 19 확산 이후 부부 간 갈등유무로 구분하였다. 자녀 돌봄에 대한 부부 간 역할 분담 정도는 리커트 척도를 구성하여 활용하였다. 이 리커트 척도는 자녀와 관련된 활동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 카테고리는 모두 배우자가 함, 대부분 배우자가 하는 편, 똑같이 하는 편, 대부분 내가 하는 편, 모두 내가 함, 해당 없음으로 설정하였다. ‘모두 배우자가 함’ 과 ‘모두 내가 함’ 에 답한 경우를 역할 분담 정도가 낮음으로 재분류하였으며, ‘대부분 배우자가 하는 편’ 과 ‘대부분 내가 하는 편’ 에 답한 경우를 역할 분담 정도가 보통인 것으로 재분류하였다. ‘똑같이 하는 편’ 에 답한 경우는 역할 분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재분류하였다. 각 변수 값을 ‘역할 분담 정도 낮음’ =1, ‘역할 분담 정도 보통’ =2, ‘역할 분담 정도 높음’ =3으로 코딩하였다. 변수 값이 클수록 부부 간 역할 분담 정도가 높다. <표 1>은 분석에 쓰인 부부 간 역할 분담 정도 척도의 항목들이다. 9개 항목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0.886으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표 1> 부부 간 역할 분담 정도 척도

	항목
1	자녀 밥 먹이기
2	자녀 목욕 시키기
3	자녀 학습지도
4	책 읽어주기
5	놀아주기
6	자녀 재우기
7	아플 때 간호하기
8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와 소통
9	자녀 필요 물품 구매

코로나 19 확산 이후 부부 간 분담과 관련한 갈등유무는 조사대상자가 ‘코로나 19 확산 이후 자녀 돌봄에 대한 부부 간 분담과 관련하여 갈등이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 갈등이 있었음’ 이라고 답을 한 경우 1로 코딩하였고, ‘아니오, 갈등이 없었음’ 이라고 답한 경우를 0으로 코딩하였다.

#### ④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요구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요구는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강북구 지역 내에서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필요한 정책·사업은 무엇입니까? 2가지만 선택해주세요.’ 라는 질문을 통해 물었다. 이에 대한 선택지는 10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중 가장 빈도가 높았던 5가지(아이돌봄지원사업(아이돌보미) 확대, 긴급돌봄·보육서비스 확대, 가족돌봄휴가 지원, 유연근무제 확대, 초등 돌봄을 위한 센터 설치)를 분석에 투입하였다. 각각의 정책적 요구를 선택하였으면 1로, 선택하지 않았으면 0으로 더미변수화하였다.

## (2) 독립변수 : 인구사회학적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변수로는 부부의 근무형태, 자녀 수,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대, 부모의 연령대, 거주 지역, 거주 기간, 센터 이용 경험을 변수로 선정하였다. 부부의 근무형태는 조사대상자 및 조사대상자의 배우자의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전일제면 ‘전일제+전일제’로, 본인 및 배우자 둘 중 한 명이 전일제이고 다른 한 명이 시간제인 경우, ‘시간제+전일제’로 구분하였다. 또한 부부 모두 시간제이거나, 본인 및 배우자 둘 중 한명이 기타라고 응답한 경우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부부의 근무형태는 ‘전일제+전일제’, ‘시간제+전일제’, ‘기타’로 구분되며, ‘전일제+전일제’=1, ‘시간제+전일제’=2, ‘기타’=3으로 코딩하였다. 자녀 수는 1명, 2명, 3명, 4명 이상으로 구분하여 답변을 받았다. 이를 1명, 2명, 3명 이상으로 재분류하였고, 각 변수 값을 ‘1명’=1, ‘2명’=2, ‘3명 이상’=3으로 코딩하였다. 변수 값이 클수록 자녀 수가 많다.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대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측정하였으며, 만 1세(12개월) 미만, 만 1세 이상~만3세(36개월) 미만, 만 3세 이상~만 5세(60개월) 미만, 만 5세 이상~초등학교 입학 전, 초등학교 저학년(1학년~3학년)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이를 영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재분류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각 변수 값을 ‘영유아(초등학교 입학 전)’=0, ‘초등학교 저학년(1학년~3학년)’=1로 코딩하였다. 부모의 연령대는 조사응답자의 연령을 활용하였으며,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각 변수 값을 ‘30대 이하’=0, ‘40대 이상’=1로 이원화하였다. 거주 지역은 강북구에 속한 행정동을 기준으로 질문하였으며, 우이동, 인수동·수유1동·수유2동·수유3동, 송천동·송중동·미아동, 번1동·번2동·번3동, 삼각산동·삼양동으로 구분하였다.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위치한 지역과의 인접성과 면적을 고려하여 각 변수값을 ‘우이동’ 및 ‘인수동·수유1,2,3동’=1로, ‘송천동·송중동·미아동·번1,2,3동·삼각산동·삼양동’=2로 코딩하였다. 강북구 거주 기간은 1년 미만, 1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15년 미만, 15년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각 변수 값을 ‘5년 미만’=1, ‘5년 이상~10년 미만’=2, ‘10년 이상’=3으로 재분류하여 코딩하였으며, 변수 값이 클수록 강북구에 거주한 기간이 길다.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경험은 구체적으로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경험으로, 조사대상자가 ‘귀하는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아십니까?’라는 질문에 ‘들어본 적이 있으며 이용해 본 적 있다’고 답을 한 경우에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 1로 코딩하였으며, ‘들어본 적이 있으나, 이용해 본 적 없다’, ‘몰랐지만, 추후 이용할 의향이 있다.’, ‘몰랐고, 추후 이용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경우 이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고 0으로 코딩하였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모두 포함한 본 연구의 측정 도구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lt;표 2&gt; 측정도구의 소개

	요인	변수	측정
중속 변수	자녀 돌봄 시간	부모 돌봄 공백 시간	1= 2시간 미만 2= 2시간 이상~4시간 미만 3= 4시간 이상
		코로나 19 확산 이후 부모 돌봄 공백 시간 증가 여부	0=변화 없다 · 줄어들었다, 1=늘어났다.
		코로나 19 확산 이후 자녀 어머니의 자녀 돌봄 시간 증가 여부	
	자녀 돌봄의 어려움	코로나 19 확산 이후 자녀 아버지의 자녀 돌봄 시간 증가 여부	0 = 해당하지 않음 1 = 해당
		자녀 교육에 대한 어려움 (학습, 가정교육 등)	
		자녀와 보내는 절대적 시간 부족 자녀를 돌보는 일 자체가 피곤하고 신체적으로 힘이 듭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정보 부족 부부 간 자녀 양육 방식의 불일치	
	자녀 돌봄에 대한 부부 간 역할 분담	코로나 19 이후 자녀 돌봄 어려움	1= 외부적 위험 2= 자녀 관련 어려움 3= 부모 관련 어려움 4= 기타
		자녀 돌봄에 대한 부부 간 역할분담정도	1-3까지 3점 척도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요구	코로나 19 확산 이후 부부 간 분담과 관련한 갈등 유무	0=없음, 1=있음
		긴급돌봄 · 보육서비스 확대	0 = 미선택 1 = 선택
		가족돌봄휴가 지원	
유연근무제 확대			
초등 돌봄을 위한 센터 설치 아이돌봄지원사업(아이돌보미) 확대			
독립 변수	인구사회학적 요인	부부의 근무 형태	1=전일제+전일제 2=시간제+전일제 3=기타
		자녀 수	1=1명 2=2명 3=3명 이상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	1= 영유아 (초등학교 입학전) 2=초등학교 저학년(1학년~3학년)
		부모 연령대	0=30대 이하, 1=40대 이상
		거주 지역	0=우이동 · 인수동 · 수유1,2,3동 1=송천동 · 송중동 · 미아동 · 번1, 2,3동 · 삼각산동 · 삼양동
		강북구 거주 기간	1= 5년 미만 2=5년 이상~10년 미만 3=10년 이상
		센터 이용 경험	0=없음, 1=있음

##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IBM SPSS Statistics ver.25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부부 간 역할분담 정도를 나타내는 리커트척도를 구성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를 사용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여부에 따라 자녀 돌봄 시간, 자녀 돌봄의 어려움, 코로나 19 이후 부부 간 분담과 관련한 갈등 유무,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요구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여부에 따른 자녀 돌봄에 대한 부부 간 역할 분담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를 집단화하여 T검정(t-test)와 일원분산분석(ANOVA,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였다.

## 4.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요인)

요인	변수	범주	빈도	백분율
인구 사회학적 요인	부부의 근무 형태	전일제+전일제	96	60.0
		시간제+전일제	53	33.1
		기타	11	6.9
	자녀 수	1명	64	40.0
		2명	84	52.5
		3명 이상	12	7.5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	영유아 (초등학교 입학 전)	101	63.1
		초등학교 저학년(1학년~3학년)	59	36.9
	부모 연령대	30대 이하	71	44.4
		40대 이상	89	55.6
	거주 지역	우이동·인수동·수유1,2,3동	70	43.8
		송천동·송중동·미아동· 번1,2,3동·삼각산동·삼양동	90	56.3
	강북구 거주 기간	5년 미만	41	25.6
		5년 이상~10년 미만	66	41.3
		10년 이상	53	33.1
	센터 이용 경험	없음	103	64.4
		있음	57	35.6

연구대상인 강북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가족의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부부의 근무 형태는 전일제+전일제, 시간제+전일제, 기타 순으로 많다. 전일제+전일제가 60%로 가장 많다. 자녀수와 관련해서는 자녀가 2명인 가구가 52.5%로 과반수를 넘었으며, 1명인 가구는 40%, 3명 이상인 가구가 7.5%이다. 초등학교 입학 전인 영유아가 가장 어린 자녀인 경우가 63.1%로 가장 많다. 부모 연령대는 40대 이상이 55.6%, 30대 이하가 44.4%로 분포한다. 절반이 넘는 56.3%가 송천동·송중동·미아동·번1,2,3동·삼각산동·삼양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3.8%는 우이동·인수동·수유1,2,3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구에 거주한 기간을 보면, 41.3%가 강북구에 5년 이상 10년 미만 거주하였으며, 33.1%가 10년 이상 강북구에 거주하였다.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경험 여부를 살펴보

면,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64.4%로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35.6%)보다 많다.

<표 4> 연구대상자의 자녀 돌봄 시간과 관련한 일반적 특성

요인	변수	범주	빈도	백분율
자녀 돌봄 시간	부모 돌봄 공백 시간	2시간 미만	64	40.0
		2시간 이상~4시간 미만	64	40.0
		4시간 이상	32	20.0
	코로나 19 확산 이후 부모 돌봄 공백 시간 증가 여부	증가하지 않음	60	37.5
		증가	100	62.5
	코로나 19 확산 이후 자녀 어머니의 자녀 돌봄 시간 증가 여부	증가하지 않음	46	28.7
		증가	114	71.3
	코로나 19 확산 이후 자녀 아버지의 자녀 돌봄 시간 증가 여부	증가하지 않음	87	54.4
증가		73	45.6	

연구대상인 강북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가족의 부모 돌봄 공백 시간은 2시간 미만인 경우와 2시간 이상 ~ 4시간 미만인 경우가 40%로 동일하다. 코로나 19 확산 이후 연구대상의 62.5%가 부모 돌봄 공백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대상의 71.3%가 코로나 19 확산 이후 자녀 어머니의 자녀 돌봄 시간이 증가한 반면, 자녀 아버지의 경우에는 연구대상의 54.4%가 코로나 19 확산 이후 자녀 돌봄 시간이 증가하지 않았다.

<표 5>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녀 돌봄의 어려움)

요인	변수	범주	빈도	백분율 (케이스 중 %)
자녀 돌봄의 어려움	자녀 돌봄 어려움	자녀 교육에 대한 어려움 (학습, 가정교육 등)	103	21.5 (64.4)
		자녀와 보내는 절대적 시간 부족	95	19.8 (59.4)
		자녀를 돌보는 일 자체가 피곤하고 신체적으로 힘이 듭	66	13.8 (41.3)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정보 부족	46	9.6 (28.7)
		부부 간 자녀 양육 방식의 불일치	27	5.6 (16.9)
	코로나 19 이후 자녀 돌봄 어려움	어려움 없음	3	1.9
		외부적 위협	28	17.5
		자녀 관련 어려움	90	56.3
		자녀의 부모 관련 어려움	13	8.1
		기타	23	15.0

자녀 돌봄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총 480개의 응답 중 자녀 교육에 대한 어려움이 21.5%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연구대상의 64.4%가 학습, 가정교육 등의 자녀 교육이 어렵다고 응답한 수치이다. 다음으로 자녀와 보내는 절대적 시간 부족이 자녀 돌봄의 어

려움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의 59.4%가 자녀와 보내는 절대적 시간 부족을 자녀를 돌보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으로 선택하였다. 자녀를 돌보는 일 자체가 피곤하고 신체적으로 힘이 든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연구대상의 41.3%가 이를 자녀 돌봄의 어려움으로 꼽았다. 또한 연구대상의 28.7%가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여 어렵다고 하였으며, 16.9%는 부부 간 자녀 양육 방식의 일치하지 않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코로나 19 자녀 돌봄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자녀 관련 어려움(자녀돌봄시간 및 부담 증가, 돌봄 공백 시간에 대한 어려움, 돌봄시설과 서비스의 휴원 및 부족, 학습 공백)이 56.3%로 가장 높으며, 외부적 위협(감염에 대한 불안감, 외출 불가로 인한 어려움)과 자녀의 부모 관련 어려움(직장 상실 및 경제적 부담, 부부 간 역할분담)이 그 뒤를 이었다.

<표 6>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녀 돌봄에 대한 부부 간 역할 분담, 자녀 돌봄 어려움 해소 위한 정책적 요구)

요인	변수	범주	빈도/ 평균	백분율 (케이스 중 %) /표준편차
자녀 돌봄에 대한 부부 간 역할 분담	자녀 돌봄에 대한 부부 간 역할분담정도 코로나 19 확산 이후 부부 간 분담과 관련한 갈등 유무	1~3까지 3점 척도	1.934	0.504
		없음	81	50.6
		있음	79	49.4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요구		긴급돌봄·보육서비스 확대	50	15.6 (31.3)
		가족돌봄휴가 지원	49	15.3 (30.6)
		유연근무제 확대	47	14.7 (29.4)
		초등 돌봄을 위한 센터 설치	44	13.8 (27.5)
		아이돌봄지원사업(아이돌보미) 확대	38	11.9 (23.8)

자녀 돌봄에 대한 부부 간 역할 분담 정도의 평균은 1.934점이고 표준편차는 0.504점이다. 연구대상의 50.6%가 코로나 19 확산 이후 부부 간 분담과 관련한 갈등이 없었다고 답하였다.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요구와 관련해서는 긴급돌봄·보육서비스 확대, 가족돌봄휴가 지원, 유연근무제 확대, 초등 돌봄을 위한 센터 설치, 아이돌봄지원사업(아이돌보미) 확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대상의 31.3%가 긴급돌봄·보육서비스 확대를, 30.6%가 가족돌봄휴가 지원을, 29.4%가 유연근무제 확대를, 27.5%가 초등 돌봄을 위한 센터 설치를, 23.8%가 아이돌봄지원사업(아이돌보미) 확대를 요구하였다.

## 2)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자녀 돌봄 시간의 차이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자녀 돌봄 시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인구사회학적 요인

인 부부의 근무형태, 자녀 수,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 부모 연령, 거주 지역, 강북구 거주 기간, 센터 이용 경험 여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자녀 돌봄 시간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은 부모 돌봄 공백 시간을 종속변수로 투입하고, <표 8>은 코로나 19 확산 이후 부모 돌봄 공백 시간 증가 여부를 종속변수로 투입하였다. <표 9>는 코로나 19 확산 이후 자녀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녀 돌봄 시간 증가 여부를 종속변수로 투입하였다.

<표 7> 각 독립변수에 따른 부모 돌봄 공백 시간의 차이

단위 : %(명,수)

변수	범주	부모 돌봄 공백 시간				$\chi^2(df)$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계	
	전체	40.0	40.0	20.0	100(160)	
부부의 근무 형태	전일제+전일제	37.5	42.7	19.8	100(96)	na
	시간제+전일제	37.7	37.7	24.5	100(53)	
	기타	72.7	27.3	0	100(11)	
자녀 수	1명	42.2	34.4	23.4	100(64)	2.669(4)
	2명	36.9	44.0	19.0	100(84)	
	3명 이상	50.0	41.7	8.3	100(12)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	영유아 (초등학교 입학 전)	34.7	47.5	17.8	100(101)	6.484*(2)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3학년)	49.2	27.1	23.7	100(59)	
부모 연령대	30대 이하	43.7	36.6	19.7	100(71)	.798(2)
	40대 이상	37.1	42.7	20.2	100(89)	
거주 지역	우이동·인수동·수유1,2,3동	37.1	44.3	18.6	100(70)	.952(2)
	송천동·송중동·미아동·번1,2,3동·삼각산동·삼양동	42.2	40.0	21.1	100(90)	
강북구 거주 기간	5년 미만	26.8	36.6	36.6	100(41)	17.156** (4)
	5년 이상~10년 미만	45.5	48.5	6.1	100(66)	
	10년 이상	43.4	32.1	24.5	100(53)	
센터 이용 경험 여부	없음	43.7	40.8	15.5	100(103)	3.911(2)
	있음	33.3	38.6	28.1	100(57)	

\*p< .05 \*\*p< .01 na: 교차분석이 용이하지 않음.

<표 7>에 따르면 부모 돌봄 공백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와 2시간 이상 ~ 4시간 미만인 경우가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부모 돌봄 공백시간은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과 강북구 거주 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부부의 근무 형태, 자녀 수, 부모 연령대, 거주 지역, 센터 이용 경험 여부는 부모 돌봄 공백시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표 8> 각 독립변수에 따른 코로나 19 확산 이후 부모 돌봄 공백 시간 증가 여부의 차이 단위 : %(명,수)

변수	범주	코로나 19 확산 이후 부모 돌봄 공백 시간 증가 여부			$\chi^2(df)$
		증가X	증가	계	
	전체	37.5	62.5	100(160)	
부부의 근무	전일제+전일제	38.5	61.5	100(96)	na
	시간제+전일제	35.8	64.2	100(53)	

형태	기타	36.4	63.6	100(11)	
자녀 수	1명	45.3	54.7	100(64)	na
	2명	33.3	66.7	100(84)	
	3명 이상	25.0	75.0	100(12)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	영유아 (초등학교 입학 전)	45.5	54.5	100(101)	7.563**(1)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3학년)	23.7	76.3	100(59)	
부모 연령대	30대 이하	40.8	59.2	100(71)	.609(1)
	40대 이상	34.8	65.2	100(89)	
거주 지역	우이동·인수동·수유1,2,3동	42.9	57.1	100(70)	1.524(1)
	송천동·송중동·미아동· 변1,2,3동·삼각산동·삼양동	33.3	66.7	100(90)	
강북구 거주 기간	5년 미만	43.9	56.1	100(41)	1.036(2)
	5년 이상~10년 미만	36.4	63.6	100(66)	
	10년 이상	34.0	66.0	100(53)	
센터 이용 경험 여부	없음	36.9	63.1	100(103)	.045(1)
	있음	38.6	61.4	100(57)	

\*p< .05 \*\*p< .01 na: 교차분석이 용이하지 않음.

<표 8>에 의하면, 연구대상의 62.5%가 코로나 19 확산 이후 자녀의 부모 돌봄 공백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코로나 19 확산 이후 부모 돌봄 공백 시간의 증가 여부는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을 제외한 인구사회학적인 요인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9> 각 독립변수에 따른 자녀 돌봄 시간의 차이

(코로나 19 확산 이후 자녀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녀 돌봄 시간 증가 여부)

단위 : %(명,수)

변수	범주	코로나 19 확산 이후 자녀 모의 자녀 돌봄 시간 증가 여부				코로나 19 확산 이후 자녀 부의 자녀 돌봄 시간 증가 여부			
		증가 X	증가	계	$\chi^2$ (df)	증가 X	증가	계	$\chi^2$ (df)
	전체	28.7	71.3	100 (160)		54.4	45.6	100 (160)	
부부의 근무 형태	전일제+전일제	33.3	66.7	100 (96)	na	53.1	46.9	100 (96)	1.605 (2)
	시간제+전일제	20.8	79.2	100 (53)		52.8	47.2	100 (53)	
	기타	27.3	72.7	100 (11)		72.7	27.3	100 (11)	
자녀 수	1명	34.4	65.6	100 (64)	na	57.8	42.0	100 (64)	1.108 (2)
	2명	26.2	73.8	100 (84)		53.6	46.4	100 (84)	
	3명 이상	16.7	83.3	100 (12)		41.7	58.3	100 (12)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	영유아 (초등학교 입학 전)	34.7	65.3	100 (101)	4.660 *	56.4	43.6	100 (101)	.469 (1)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3학년)	18.6	81.4	100 (59)		50.8	49.2	100 (59)	

부모 연령대	30대 이하	36.6	63.4	100 (71)	3.859 * (1)	50.7	49.3	100 (71)	.693 (1)
	40대 이상	22.5	77.5	100 (89)		57.3	42.7	100 (89)	
거주 지역	우이동·인수동· 수유1,2,3동	35.7	64.3	100 (70)	2.946 (1)	47.1	52.9	100 (70)	2.624 (1)
	송천동·송중동· 미아동·빈1,2,3동· 삼각산동·삼양동	23.3	76.7	100 (90)		60.0	40.0	100 (90)	
강북구 거주 기간	5년 미만	43.9	56.1	100 (41)	6.538 * (2)	65.9	34.1	100 (41)	7.419 * (2)
	5년 이상~10년 미만	25.8	74.2	100 (66)		59.1	40.9	100 (66)	
	10년 이상	20.8	79.2	100 (53)		39.6	60.4	100 (53)	
센터 이용 경험 여부	없음	33.0	67.0	100 (103)	2.561 (1)	54.4	45.6	100 (103)	.000 (1)
	있음	21.1	78.9	100 (57)		54.4	45.6	100 (57)	

\* $p < .05$  na: 교차분석이 용이하지 않음.

<표 9>에 의하면 연구대상의 71.3%가 코로나 19 확산 이후 자녀 어머니의 자녀 돌봄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코로나 19 확산 이후 자녀 어머니의 자녀 돌봄 시간 증가여부는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 부모 연령대, 거주 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부부의 근무 형태, 자녀 수, 거주 지역은 코로나 19 확산 이후 자녀 어머니의 자녀 돌봄 시간 증가여부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또한 코로나 19 확산 이후 자녀 아버지의 자녀 돌봄 시간 증가 여부와 관련해서는 연구대상의 54.4%가 자녀 돌봄 시간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코로나 19 확산 이후 자녀 아버지의 자녀 돌봄 시간 증가여부는 강북구 거주 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거주 기간을 제외한 다른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서는 아버지의 자녀 돌봄 시간 증가 여부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3)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자녀 돌봄 어려움의 차이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자녀 돌봄 어려움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인구사회학적 요인인 부부의 근무형태, 자녀 수,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 부모 연령, 거주 지역, 강북구 거주 기간, 센터 이용 경험 여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0~12>는 자녀 돌봄 어려움과 관련된 문항을 더미변수화한 것을 투입하였다. <표 10>은 자녀 교육에 대한 어려움(학습, 가정교육 등)과 자녀와 보내는 절대적 시간 부족을, <표 11>은 자녀를 돌보는 일 자체가 피곤하고 신체적으로 힘이 듦을 종속변수로 투입하였다. <표 12>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정보 부족, 부부 간 자녀 양육 방식의 불일치를 종속변수로 투입하였다. <표 13>는 코로나 19 확산 이후 자녀 돌봄 어려움을 종속변수로 투입하였다.

&lt;표 10&gt; 각 독립변수에 따른 자녀 돌봄의 어려움의 차이

(자녀 교육에 대한 어려움(학습, 가정교육 등), 자녀와 보내는 절대적 시간 부족) 단위 : %(명, 수)

변수	범주	자녀 교육에 대한 어려움 (학습, 가정교육 등)				자녀와 보내는 절대적 시간 부족			
		해당 X	해당	계	$\chi^2$ (df)	해당 X	해당	계	$\chi^2$ (df)
	전체	35.6	64.4	100 (160)		40.6	59.4	100 (160)	
부부의 근무 형태	전일제+전일제	40.6	59.4	100 (96)	na	28.1	71.9	100 (96)	na
	시간제+전일제	28.3	71.7	100 (53)		56.6	43.4	100 (53)	
	기타	27.3	72.7	100 (11)		72.7	27.3	100 (11)	
자녀 수	1명	40.6	59.4	100 (64)	na	39.1	60.9	100 (64)	na
	2명	35.7	64.3	100 (84)		42.9	57.1	100 (84)	
	3명 이상	8.3	91.7	100 (12)		33.3	66.7	100 (12)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	영유아 (초등학교 입학 전)	40.6	59.4	100 (101)	2.949 (1)	42.6	57.4	100 (101)	.431 (1)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3학년)	27.1	72.9	100 (59)		37.3	62.7	100 (59)	
부모 연령대	30대 이하	40.8	59.2	100 (71)	1.517 (1)	45.1	54.9	100 (71)	1.046 (1)
	40대 이상	31.5	68.5	100 (89)		37.1	62.9	100 (89)	
거주 지역	우이동·인수동· 수유1,2,3동	40.0	60.0	100 (70)	1.039 (1)	38.6	61.4	100 (70)	.218 (1)
	송천동·송중동· 미아동·뚝1,2,3동· 삼각산동·삼양동	32.2	67.8	100 (90)		42.2	57.8	100 (90)	
강북구 거주 기간	5년 미만	46.3	53.7	100 (41)	7.967 * (2)	41.5	58.5	100 (41)	.986 (2)
	5년 이상~10년 미만	40.9	59.1	100 (66)		36.4	63.6	100 (66)	
	10년 이상	20.8	79.2	100 (53)		45.3	54.7	100 (53)	
센터 이용 경험 여부	없음	36.9	63.1	100 (103)	.203 (1)	42.7	57.3	100 (103)	.525 (1)
	있음	33.3	66.7	100 (57)		36.8	63.2	100 (57)	

\*p&lt; .05 na: 교차분석이 용이하지 않음.

<표 10>에 의하면 연구대상의 64.4%가 자녀 교육에 대한 어려움(학습, 가정교육 등)을 자녀 돌봄의 어려움으로 꼽았다. 자녀돌봄의 어려움으로 자녀 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것에는 강북구 거주 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이를 제외한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은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연구대상의 59.4%가 자녀와 보내는 절대적 시간 부족과 관련해서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못하였다.

<표 11> 각 독립변수에 따른 자녀 돌봄의 어려움의 차이

(자녀를 돌보는 일 자체가 피곤하고 신체적으로 힘이 듦)

단위 : %(명,수)

변수	범주	자녀를 돌보는 일 자체가 피곤하고 신체적으로 힘이 듦			$\chi^2$ (df)
		해당 X	해당	계	
	전체	58.7	41.3	100(160)	
부부의 근무 형태	전일제+전일제	56.3	43.8	100(96)	na
	시간제+전일제	64.2	35.8	100(53)	
	기타	54.5	45.5	100(11)	
자녀 수	1명	65.6	34.4	100(64)	na
	2명	57.1	42.9	100(84)	
	3명 이상	33.3	66.7	100(12)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	영유아 (초등학교 입학 전)	62.4	37.6	100(101)	1.486(1)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3학년)	52.5	47.5	100(59)	
부모 연령대	30대 이하	64.8	35.2	100(71)	1.921(1)
	40대 이상	53.9	46.1	100(89)	
거주 지역	우이동·인수동·수유1,2,3동 송천동·송중동·미아동· 번1,2,3동·삼각산동·삼양동	61.4	38.6	100(70)	.368(1)
		56.7	43.3	100(90)	
강북구 거주 기간	5년 미만	41.5	58.5	100(41)	6.867*(2)
	5년 이상~10년 미만	63.6	36.4	100(66)	
	10년 이상	66.0	34.0	100(53)	
센터 이용 경험 여부	없음	66.0	34.0	100(103)	6.304*(1)
	있음	45.6	54.4	100(57)	

\*p< .05 na: 교차분석이 용이하지 않음.

<표 11>에 따르면 연구대상의 41.3%가 자녀를 돌보는 일 자체가 피곤하고 신체적으로 힘이 든다고 하였다. 강북구 거주 기간과 센터 이용 경험 여부에 따라 이러한 어려움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2> 각 독립변수에 따른 자녀 돌봄의 어려움의 차이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정보 부족, 부부 간 자녀 양육 방식의 불일치)

단위 : %(명,수)

변수	범주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정보 부족				부부 간 자녀 양육 방식의 불일치			
		해당 X	해당	계	$\chi^2$ (df)	해당 X	해당	계	$\chi^2$ (df)
	전체	71.3	28.7	100 (160)		83.1	16.9	100 (160)	
부부의 근무 형태	전일제+전일제	72.9	27.1	100 (96)	na	83.3	16.7	100 (96)	na
	시간제+전일제	71.7	28.3	100 (53)					
	기타	54.5	45.5	100 (11)					
자녀 수	1명	64.1	35.9	100 (64)	na	87.5	12.5	100 (64)	na
	2명	75.0	25.0	100					

				(84)				(84)	
	3명 이상	83.3	16.7	100 (12)		91.7	8.3	100 (12)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	영유아 (초등학교 입학 전)	72.3	27.7	100 (101)	.141 (1)	81.2	18.8	100 (101)	.406 (1)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3학년)	69.5	30.5	100 (59)		86.4	13.6	100 (59)	
부모 연령대	30대 이하	71.8	28.2	100 (71)	.021 (1)	84.5	15.5	100 (71)	.174 (1)
	40대 이상	70.8	29.2	100 (89)		82.0	18.0	100 (89)	
거주 지역	우이동·인수동· 수유1,2,3동	72.9	27.1	100 (70)	.157 (1)	82.9	17.1	100 (70)	.006 (1)
	송천동·송중동· 미아동·번1,2,3동· 삼각산동·삼양동	70.0	30.0	100 (90)		83.3	16.7	100 (90)	
강북구 거주 기간	5년 미만	82.9	17.1	100 (41)	3.692 (2)	75.6	24.4	100 (41)	3.823 (2)
	5년 이상~10년 미만	66.7	33.3	100 (66)		81.8	18.2	100 (66)	
	10년 이상	67.9	32.1	100 (53)		90.6	9.4	100 (53)	
센터 이용 경험 여부	없음	69.9	30.1	100 (103)	.256 (1)	83.5	16.5	100 (103)	.028 (1)
	있음	73.7	26.3	100 (57)		82.5	17.5	100 (57)	

na: 교차분석이 용이하지 않음.

<표 12>에 의하면 연구대상의 28.7%가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부부 간 자녀 양육 방식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어렵다고 연구대상의 16.9%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못하였다.

<표 13> 각 독립변수에 따른 코로나 19 이후 자녀 돌봄 어려움의 차이

단위 : %(수)

변수	범주	코로나 19 이후 자녀 돌봄 어려움					$\chi^2$ (df)
		외부적 위험	자녀와 관련한 어려움	부모와 관련한 어려움	기타	계	
	전체	18.1	58.1	8.4	15.5	100(155)	
부부의 근무 형태	전일제+전일제	18.1	55.3	7.4	19.1	100(94)	na
	시간제+전일제	14.0	62.0	12.0	12.0	100(50)	
	기타	36.4	63.6	0	0	100(11)	
자녀 수	1명	30.6	40.3	9.7	19.4	100(62)	na
	2명	9.9	69.1	7.4	13.6	100(81)	
	3명 이상	8.3	75.0	8.3	8.3	100(12)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	영유아 (초등학교 입학 전)	23.2	53.5	9.1	14.1	100(99)	na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3학년)	8.9	66.1	7.1	17.9	100(56)	

부모 연령대	30대 이하	24.6	50.7	8.7	15.9	100(69)	4.159(3)
	40대 이상	12.8	64.0	8.1	15.1	100(86)	
거주 지역	우이동·인수동·수유1,2,3동	19.1	54.4	7.4	19.1	100(68)	1.540(3)
	송천동·송중동·미아동· 번1,2,3동·삼각산동·삼양동	17.2	60.9	9.2	12.6	100(87)	
강북구 거주 기간	5년 미만	25.6	53.8	5.1	15.4	100(39)	na
	5년 이상~10년 미만	10.8	58.5	12.3	18.5	100(65)	
	10년 이상	21.6	60.8	5.9	11.8	100(51)	
센터 이용 경험 여부	없음	23.0	56.0	7.0	14.0	100(100)	na
	있음	9.1	61.8	10.9	18.2	100(55)	

na: 교차분석이 용이하지 않음.

<표 13>에 의하면 코로나 19 확산 이후 연구대상의 58.1%가 자녀와 관련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코로나 19확산 이후 자녀 돌봄 어려움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4)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부부 간 역할 분담의 차이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부부 간 역할 분담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요인인 부부의 근무형태, 자녀 수,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 부모 연령, 거주 지역, 강북구 거주 기간, 센터 이용 경험 여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는 자녀 돌봄에 대한 부부 간 역할 분담 정도와 코로나 19 확산 이후 부부 간 갈등 유무를 투입하였다. 자녀 돌봄에 대한 부부 간 역할 분담 정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모형은 T검정(t-test)과 일원분산분석(ANOVA,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 19 확산 이후 부부 간 갈등 유무를 종속변수로 투입한 모형은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T검정(t-test) 및 일원분산분석(ANOVA, Analysis of Variance)과 교차분석의 결과는 <표 14>에 제시하였다.

<표 14> 각 독립변수에 따른 부부 간 역할 분담의 차이

(자녀 돌봄에 대한 부부 간 역할 분담 정도, 코로나 19 확산 이후 부부 간 분담 관련 갈등 유무)

단위 : %(수)

변수	범주	자녀 돌봄에 대한 부부 간 역할 분담 정도			코로나 19 확산 이후 부부 간 분담과 관련한 갈등 유무			
		빈도	평균	F/t	갈등 없음	갈등 있음	계	$\chi^2$ (df)
부부의 근무 형태	전일제+전일제	90	1.96	.421	51.0	49.0	100 (96)	1.005 (2)
	시간제+전일제	48	1.88		47.2	52.8	100 (53)	
	기타	8	1.99		63.6	36.4	100 (11)	
자녀 수	1명	61	1.90	1.572	48.4	51.6	100 (64)	2.133 (2)

	2명	75	1.99		54.8	45.2	100 (84)	
	3명 이상	10	1.71		33.3	66.7	100 (12)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	영유아 (초등학교 입학 전)	97	1.88	1.798	53.5	46.5	100 (101)	.884 (1)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3학년)	49	2.04		45.8	54.2	100 (59)	
부모 연령대	30대 이하	67	1.93	.076	54.9	45.1	100 (71)	.946 (1)
	40대 이상	79	1.94		47.2	52.8	100 (89)	
거주 지역	우이동·인수동· 수유1,2,3동	63	1.82	2.374*	47.1	52.9	100 (70)	.604 (1)
	송천동·송중동· 미아동·번1,2,3동· 삼각산동·삼양동	83	2.02		53.3	46.7	100 (90)	
강북구 거주 기간	5년 미만	36	1.88	1.362	56.1	43.9	100 (41)	.755 (2)
	5년 이상~10년 미만	60	1.89		50.0	50.0	100 (66)	
	10년 이상	50	2.03		47.2	52.8	100 (53)	
센터 이용 경험 여부	없음	97	1.96	1.036	50.5	49.5	100 (103)	.002 (1)
	있음	49	1.87		50.9	49.1	100 (57)	

\*p< .05 na: 교차분석이 용이하지 않음.

<표 14>에 의하면 자녀 돌봄에 대한 부부 간 역할 분담 정도의 평균은 1.934점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유일하게 강북구 거주 지역만 자녀 돌봄에 대한 부부 간 역할 분담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19 확산 이후 부부 간 분담과 관련한 갈등 유무에 대해서는 연구 대상의 49.0%가 갈등은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코로나 19 확산 이후 부부 간 분담과 관련한 갈등 유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5)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자녀 돌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정책적 요구의 차이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자녀 돌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정책적 요구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인구사회학적 요인인 부부의 근무형태, 자녀 수,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 부모 연령, 거주 지역, 강북구 거주 기간, 센터 이용 경험 여부를 독립변수로 하고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5~17>는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요구와 관련된 문항을 더미변수화한 것을 투입하였다. <표 15>은 긴급돌봄·보육서비스 확대와 가족돌봄휴가 지원을, <표 16>는 유연근무제 확대와 초등 돌봄을 위한 센터 설치를, <표 17>은 아이돌봄지원사업(아이돌보미) 확대를 종속변수로 투입하였다.

<표 15> 각 독립변수에 따른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요구의 차이  
(긴급돌봄·보육서비스 확대, 가족돌봄휴가 지원)

단위 : %(수)

변수	범주	긴급돌봄·보육서비스 확대				가족돌봄휴가 지원			
		선택 X	선택	계	$\chi^2$ (df)	선택 X	선택	계	$\chi^2$ (df)
	전체	68.7	31.3	100 (96)		69.4	30.6	100 (96)	
부부의 근무 형태	전일제+전일제	69.8	30.2	100 (96)	na	65.6	34.4	100 (96)	na
	시간제+전일제	67.9	32.1	100 (53)		73.6	26.4	100 (53)	
	기타	63.6	36.4	100 (11)		81.8	18.2	100 (11)	
자녀 수	1명	70.3	29.7	100 (64)	na	71.9	28.1	100 (64)	na
	2명	66.7	33.3	100 (84)		66.7	33.3	100 (84)	
	3명 이상	75.0	25.0	100 (12)		75.0	25.0	100 (12)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	영유아 (초등학교 입학 전)	67.3	32.7	100 (101)	.258 (1)	74.3	25.7	100 (101)	3.073 (1)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3학년)	71.2	28.8	100 (59)		61.0	39.0	100 (59)	
부모 연령대	30대 이하	62.0	38.0	100 (71)	2.730 (1)	73.2	26.8	100 (71)	.897 (1)
	40대 이상	74.2	25.8	100 (89)		66.3	33.7	100 (89)	
거주 지역	우이동·인수동·수유1,2,3동	68.6	31.4	100 (70)	.002 (1)	77.1	22.9	100 (70)	3.534 (1)
	송천동·송중동·미아동·번1,2,3동·삼각산동·삼양동	68.9	31.1	100 (90)		63.3	36.7	100 (90)	
강북구 거주 기간	5년 미만	70.7	29.3	100 (41)	1.455 (2)	58.5	41.5	100 (41)	5.943 (2)
	5년 이상~10년 미만	63.6	36.4	100 (66)		66.7	33.3	100 (66)	
	10년 이상	73.6	26.4	100 (53)		81.1	18.9	100 (53)	
센터 이용 경험 여부	없음	70.9	29.1	100 (103)	.607 (1)	63.1	36.9	100 (103)	5.347* (1)
	있음	64.9	35.1	100 (57)		80.7	19.3	100 (57)	

\*p< .05 na: 교차분석이 용이하지 않음.

<표 15>에 따르면 연구대상의 41.3%가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돌봄·보육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이러한 정책적 요구에 대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못하였다.

가족돌봄휴가 지원 관련해서는 연구대상의 30.6%가 이를 요구하였다.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경험 여부에 따라 이러한 정책적 요구에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났으며, 이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가족돌봄휴가 지원 요구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표 16> 각 독립변수에 따른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요구의 차이

(유연근무제 확대, 초등 돌봄을 위한 센터 설치)

단위 : %(명, 수)

변수	범주	유연근무제 확대				초등 돌봄을 위한 센터 설치			
		선택 X	선택	계	$\chi^2$ (df)	선택 X	선택	계	$\chi^2$ (df)
	전체	70.6	29.4	100 (96)		72.5	27.5	100 (96)	
부부의 근무 형태	전일제+전일제	66.7	33.3	100 (96)	na	78.1	21.9	100 (96)	na
	시간제+전일제	75.5	24.5	100 (53)		64.2	35.8	100 (53)	
	기타	81.8	18.2	100 (11)		63.6	36.4	100 (11)	
자녀 수	1명	70.3	29.7	100 (64)	na	84.4	15.6	100 (64)	na
	2명	69.0	31.0	100 (84)		67.9	32.1	100 (84)	
	3명 이상	83.3	16.7	100 (12)		41.7	58.3	100 (12)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	영유아 (초등학교 입학 전)	71.3	28.7	100 (101)	.058 (1)	81.2	18.8	100 (101)	10.370 ** (1)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3학년)	69.5	30.5	100 (59)		57.6	42.4	100 (59)	
부모 연령대	30대 이하	74.6	25.4	100 (71)	.996 (1)	80.3	19.7	100 (71)	3.877* (1)
	40대 이상	67.4	32.6	100 (89)		66.3	33.7	100 (89)	
거주 지역	우이동·인수동· 수유1,2,3동	71.4	28.6	100 (70)	.039 (1)	64.3	35.7	100 (70)	4.212* (1)
	송천동·송중동· 미아동·번1,2,3동· 삼각산동·삼양동	70.0	30.0	100 (90)		78.9	21.1	100 (90)	
강북구 거주 기간	5년 미만	73.2	26.8	100 (41)	4.217 (2)	85.4	14.6	100 (41)	6.191* (2)
	5년 이상~10년 미만	77.3	22.7	100 (66)		72.7	27.3	100 (66)	
	10년 이상	60.4	39.6	100 (53)		62.3	37.7	100 (53)	
센터 이용 경험 여부	없음	73.8	26.2	100 (103)	1.393 (1)	77.7	22.3	100 (103)	3.876* (1)
	있음	64.9	35.1	100 (57)		63.2	36.8	100 (57)	

\* $p < .05$  \*\* $p < .01$  na: 교차분석이 용이하지 않음.

<표 16>에 따르면 연구대상의 29.3%가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연근무제 확대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유연근무제 확대 요구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초등 돌봄을 위한 센터 설치 관련해서는 연구 대상의 27.5%가 이를 요구하였으며,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 부모 연령대, 거주 지역, 강북구 거주기간,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경험 여부에 따라 이러한 정책적 요구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부부의 근무 형태와 자녀 수는 초등 돌봄을 위한 센터 설치 요구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표 17> 각 독립변수에 따른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요구의 차이  
(아이돌봄지원사업(아이돌보미) 확대)

단위 : %(명, 수)

변수	범주	아이돌봄지원사업(아이돌보미) 확대			
		선택 X	선택	계	$\chi^2$ (df)
	전체	76.2	23.8	100(160)	
부부의 근무 형태	전일제+전일제	75.0	25.0	100(96)	na
	시간제+전일제	75.5	24.5	100(53)	
	기타	90.9	9.1	100(11)	
자녀 수	1명	75.0	25.0	100(64)	na
	2명	76.2	23.8	100(84)	
	3명 이상	83.3	16.7	100(12)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	영유아 (초등학교 입학 전)	72.3	27.7	100(101)	2.387(1)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3학년)	83.1	16.9	100(59)	
부모 연령대	30대 이하	74.6	25.4	100(71)	.181(1)
	40대 이상	77.5	22.5	100(89)	
거주 지역	우이동·인수동·수유1,2,3동	74.3	25.7	100(70)	.265(1)
	송천동·송중동·미아동· 번1,2,3동·삼각산동·삼양동	77.8	22.2	100(90)	
강북구 거주 기간	5년 미만	75.6	24.4	100(41)	1.159(2)
	5년 이상~10년 미만	72.7	27.3	100(66)	
	10년 이상	81.1	18.9	100(53)	
센터 이용 경험 여부	없음	75.7	24.3	100(103)	.043(1)
	있음	77.2	22.8	100(57)	

na: 교차분석이 용이하지 않음.

<표 17>에 따르면 연구대상의 23.8%가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지원사업(아이돌보미) 확대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아이돌봄지원사업(아이돌보미) 확대 요구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5. 결론

### 1) 연구결과와 정책적 제언

본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강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시간, 자녀 돌봄의 어려움, 자녀 돌봄에 대한 부부 간 역할 분담의 차이,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요구의 차이가 있

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강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 코로나 19 확산 이후 새롭게 나타나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요구를 조사함으로써 강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맞벌이 가정의 맞춤형 정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자녀 돌봄 시간, 자녀 돌봄의 어려움, 코로나 19 이후 부부 간 분담과 관련한 갈등 유무,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요구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자녀 돌봄에 대한 부부 간 역할 분담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T검정(t-test) 및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은 자녀 돌봄 시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왔다. 자녀 돌봄 시간을 부모 돌봄 공백 시간과 부모의 자녀 돌봄 시간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는데,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은 부모 돌봄 공백 시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왔다. 이는 자녀의 연령이 부모 돌봄 공백 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류연구 외, 2019; 임혜정, 2017) 또한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은 코로나 19 확산 이후 자녀 어머니의 자녀 돌봄 시간 증가 여부에도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왔지만, 자녀 아버지의 자녀 돌봄 시간 증가 여부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미취학자녀 연령이 자녀 모의 자녀돌봄시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지만, 자녀 부의 자녀돌봄시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둘째, 강북구 거주 기간이 자녀 돌봄의 어려움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왔다. 자녀 돌봄의 어려움 중 자녀 교육에 대한 어려움(학습, 가정교육 등)과 자녀를 돌보는 일 자체가 피곤하고 신체적으로 힘이 들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왔다. 하지만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은 자녀 돌봄의 어려움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 연령이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정보 부족과 부부 간 자녀 양육 방식의 불일치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온다는 기존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이연승 외, 2017) 기존의 선행연구는 아버지의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연구한 것이나, 본 연구는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응답자의 성별이 여성이 90.63%, 남성이 9.38%으로 분포한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구사회학적인 요인에 따라 코로나 19 확산 이후 부부 간 분담과 관련한 갈등 유무의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감염에 대한 불안감, 외출 불가로 인한 어려움, 자녀 돌봄시간 및 부담 증가, 돌봄 공백 시간에 대한 어려움, 돌봄시설과 서비스의 휴원 및 부족, 학습 공백, 직장 상실 및 경제적 부담 등의 맞벌이 가정의 새로운 돌봄 요구를 파악할 수 있었다.

셋째, 부부의 근무 형태, 자녀 수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 부모 연령은 자녀 돌봄에 대한 부부 간 역할 분담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배치되는 결과이다.(허수연·김한성, 2019; 안미영, 2016; 김소영, 2017)

넷째, 대부분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요구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하지만, 초등 돌봄을 위한 센터 설치의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 부모 연령대, 거주 지역, 거주 기간,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

족지원센터 이용 경험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연구 분석을 진행하면서,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들도 있었다. 첫째로, 거주지역에 따라 자녀 돌봄에 대한 부부 간 역할 분담 정도와 초등 돌봄을 위한 센터 설치 요구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의미한 차이는 강북구 인수동에 설치되어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이어서 제 2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미아동에 건립 추진하려고 하는 강북구의 계획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희망강북 4개년 계획)

둘째, 거주기간에 따라 부모 돌봄 공백시간, 코로나 19 확산 이후 자녀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녀 돌봄 시간 증가 여부, 자녀 돌봄의 어려움(자녀 교육에 대한 어려움, 자녀를 돌보는 일 자체가 피곤하고 신체적으로 힘이 듦),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요구(초등 돌봄을 위한 센터 설치)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거주기간에 따라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을 볼 때, 거주기간의 영향을 받아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매개변수를 찾을 필요가 있다.

셋째,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험 여부에 따라 자녀 돌봄의 어려움(자녀를 돌보는 일 자체가 피곤하고 신체적으로 힘이 듦),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요구(가족돌봄 휴가 지원, 초등 돌봄을 위한 센터 설치)를 제외한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이는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유무에 따라 맞벌이 가구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코로나 19 확산과 같은 공적돌봄체계를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모두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던 변수들을 토대로 우선순위로 넣어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강북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요구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의 가족정책 추진방향에 부응하여 건강가정사업을 실시하고, 돌봄 및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설립 목적 및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따라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욕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2)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 제언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요구를 조사·연구했다면, 본 연구는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도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코로나 19 확산 상황을 연구에 투입하였다는 점이 이전의 연구들과는 차별성이 있다. 이러한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자녀 돌봄에 대한 부부 간 역할 분담 정도를 측정하는 리커트 척도이다. 이 리커트 척도는 3점 리커트 척도로,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5점 혹은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이다. 둘째, 표본 수가 작다는 것이다. 표본 수가 작기에, 교차분석 실시의 결과가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표본 수를 모아서 한다면 본 연구에서는 얻지 못했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이변량 분석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종속변수의 차이가 있다는 것만 발견했다. 유의미한 차이는 관찰되었지만, 이러한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발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바탕으로 자녀 돌봄 요구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서울열린데이터광장 홈페이지 <http://data.seoul.go.kr/dataList/188/S/2/datasetView.do>
- 강북구청(2019). 희망강북 4개년 계획[2019~2022]. 강북구청.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년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37](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37)
- 장혜경 외(2015). 2015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20). 202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여성가족부.
- 서울특별시교육청(2020). 2020 서울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서울특별시교육청
- 류연규, 김송이, 김민정(2019). 일상적 영유아 부모 돌봄 공백 시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서울시 맞벌이 가구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64), 53-92.
- 임혜정(2017). 패널순서형로짓모형을 이용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방과후 돌봄공백 영향요인 분석. 보건사회연구, 37(4), 510-534.
- 고용노동부(2020). 2019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 고용노동부.
- 이현아, 김선미, 이승미(2016).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가사노동시간과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자치행정학보, 30(2), 231-261.
- 조희금(2016). 맞벌이가정 아버지의 근로시간특성과 가족친화제도가 자녀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0:4, 49-68.
- 김나영(2017). 맞벌이 부부의 자녀돌봄시간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노동정책연구, 17(4), 31-54.
- 이연승, 최진령, 김현정(2017). 아버지의 육아참여에 대한 인식, 실태 그리고 어려움. 유아교육연구, 37:4, 812-829.
- 김은설(2012). 취업모의 취업특성별 보육서비스 이용실태 및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 6:2, 77-108.
- 허수연, 김한성(2019).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시간과 분담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4, 5-28.
- 안미영(2016). 한국 맞벌이 부부의 고용 형태와 가족 내 노동 분업의 젠더 불평등에 관한 연구. 경제와사회, 112, 14-37.
- 김소영(2017). 남편의 가사노동과 자녀돌봄 분담 유형별 관련요인 및 부부의 가사분담 만족도: 맞벌이 부부와 비맞벌이 부부 비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2(3), 47-72.

윤소영, 김하늬, 고선강(2009).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균형을 위한 기업의 가족친화정책 실시, 활용 및 요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1), 1-21.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familynet.or.kr/web/lay1/S1T309C338/contents.do>